

[교육]



올해부터 수능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대입제도 대변혁이 예고돼 중·고교생들은 이에 따른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진은 2008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형 토익·토플’ 내년말까지 첫 시행

교육부, 영어능력평가 시험 개발 박차

2012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영어 성적을 대체하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판 토익’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2009년 말까지 중·고생에게 실시할 것으로 목표로 시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토익·토플 시험에 대한 응시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익·토플을 대체하기 위해 민

간 영어시험 공인제도가 있으나 현재 치러지고 있는 5개(PELT, TESL, TEPS, ESPT, MATE) 시험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현재 한국인 토익·토플 응시자는 269만명 수준이다. 교육부가 개발 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듣기·쓰기·말하기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단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치르지, 몇 차례

에 나눠 치러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토익·토플처럼 IBT(Internet-Based Test·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시험을 주관하게 될 가정 ‘영어능력평가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며 향후 응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운영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 高 1~3학년 논술 비중 ↓ 수능 영향력 ↑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당장 올해 수능부터 수험생들에게 영역별 등급과 함께 백분율, 표준점수가 제공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등급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 전형은 2007학년도 입시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최대 8개인 수능 과목이 5개로 줄고, 그이듬해인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도 수능에서 빠지게 된다. 영어는 연중 4회 실시되는 능력검증시험 방식으로 대체된다. 대변혁이 예고된 수능제도에 따른 학년별 준비요령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 1~3학년생 = 올해 고교생들은 같은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내신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등급제가 변별력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술까지 강조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송일고 박성근 진학실장은 “등급제가 폐지

성적 뿐 아니라 봉사활동과 특기적성 등 다양한 영역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2=올해 중2가 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이 빠져 최대 4과목이 된다. 언어·수리영역에다 선택 2과목을 추가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하다. 영어는 연 4회 시행되는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중2 학생들은 대입을 위한 영어 공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실력만 갖춰진다면 입시에 필요한 영어 성적을 수능 이전에도 받을 수 있는 것.

듣기·말하기·쓰기·읽기 등으로 구성된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선다형 문제와 듣기 문제로 이뤄진 지금의 영어 시험과는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기세를 부릴 것으로 전망하는 바이다. 현재 중3보다 더욱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아카데미 서정현 원장은 “대학은 전통적으로 국·영·수 등 주요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도 대학의 특기자전형 중 문과 점수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대학이나 학과들은 장기적으로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유아 겨울학교’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1천712명)를 위한 ‘유아 겨울학교’를 열어 방학중에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학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가 늘어 도내 119개원(128학급) 겨울학교를 오는 2월 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학교는 겨울방학동안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일반학급(5시간 이내), 연장제(5

시간 이상), 종일제(8시간 이상)로 운영돼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그동안 답답교사가 봉사차원으로 운영하던 겨울학교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처음으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보다 질 높은 겨울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조선대-서강정보대 ‘교육과정 연계’ 협약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이강욱)과 서강정보대학(학장 김정수)은 최근 상호 발전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서 두 학교는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교수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강정보대 경영대학과의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조선대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김정수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강정보대에서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 경영전문직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계속교육을 원하는 경영관리 실무자들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춰 성공적인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호남대-곡성군 인력개발 특화 협정 체결

호남대학교(총장 이현청)는 22일 농어촌 출신 인재육성과 인력개발 특화사업을 위해 곡성군과 관·학협정을 체결했다. (사진)

호남대와 곡성군은 다문화가정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번 협정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호남대 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곡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역할에 나서면서 첫 공식 교류를 갖는다.

또 호남대는 곡성군과 함께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초·중·고교생 대상 수학 및 과학캠프 운영),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 기초지자체 행정요원을 위한 전략 및 기획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및 문해교육, 영농후계자 정보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호남대는 호남지역혁신센터(지역협력단)를 개설, 올해 상반기 중 영남·화순군과도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3 대학 전형 따라 유리한 과목 정해 집중 공부를

중2 수능 네 과목만... 영어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되면 골고루 좋은 등급을 받기보다는 잘하는 과목에 치중해 점수가 낮은 과목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익숙한 학생들은 좋아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과목이든 점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올해 보다 적은 숫자의 대학이 논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술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논술에 해선 안 된다.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은 일제감치 등급제가 보완되면 논술을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와 논술이 여전히 선발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술의 형태도 중학교 이 오랫동안 연구해 완성한 형태이므로 통합논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나 교대 등 중위권 대

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을 학기 중에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관리를 잘 해두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중 3=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과목수가 최대 5개로 줄어든다. 언어·수리·외국어 외에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중 최대 2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겹으로는 과목수가 줄어 공부 부담도 줄어든 것

으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몇 개 안 되는 과목이어서 모두가 ‘올인’하면 과잉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인수의 의도도 꼭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은 “상위권 학생들은 과목수가 많은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중하위권은 반대일 것”이라며 “어찌됐든 과목수가 줄어든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3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요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과목을 정해두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대학자율화에 따라 전형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학력이나 장래 희망 등으로 고려해 일찍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for sale or leas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featuring '★급매매★' (Urgent sale) of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by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Auction Consulting Co., Ltd.),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특급상가 매매·임대' (Premium Commercial Building Sale/Rent) by '복구 옹봉동 무름 상가주택' (Bokgu Ongbongdong Mureum Commercial Building/Residential),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by 'BM公認仲介士事務所' (BM Certified Real Estate Agency),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